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 위기로 좌초...투자 환경은 유리

2006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고공 행진은 2008년 금융 위기로 2년도 안 돼 꺾였는데, 3~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는 전무해 보인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좌초하고 있는 캄코시티 프로젝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것 같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 12월 외국인이 공유건물(집합건물)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 공유건물 전유 부분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유건물에 한해 건물의 70%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중략)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 [제863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